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리뷰: 이타주의방정식

이안맥케이

이안맥케이
리뷰: 이타주의방정식
August 15, 2024

원문:
<https://anarchism.pageabode.com/review-the-altruism-equation/> ,
아카이브: <https://web.archive.org/web/20250211190028/https://anarchism.pageabode.com/review-the-altruism-equation/>

kr.theanarchistlibrary.org

August 15, 2024

크로포트킨 (Kropotkin) 을 논하는 진화론과 이타주의에 관한 책에 대한 리뷰. 안타깝게도, 보여진 대로, 크로포트킨의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은 결함이 있어서” 상호부조” 와 과학에 대한 그의 기여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리뷰: 이타주의 방정식

리앨런 듀가킨 (Lee Alan Dugatkin), 『이타주의 방정식: 선의 기원을 찾는 7 명의 과학자』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2006)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1859) 이래로 동물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즉, 협력, 이타주의, 윤리입니다. 다윈의 걸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는 개별 경쟁이었고, 이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윈 자신은 『인간의 유래』 (1871) 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윈의 원칙을 지지하는 영국의 토마스 헨리 허슬리 (Thomas Henry Huxley) 는 1888 년에 자연을 ‘붉은 이빨과 발톱’ 으로 묘사한 기원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진화와 윤리가 관련이 없다는 개념 (실제로는 반대 개념) 을 설명했습니다. 잘 읽는 무정부주의자라면 알겠지만, 이 글은 크로포트킨이나 후에 허슬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상호부조: 진화의 요인』 (1902) 이 된 글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크로포트킨의 이름은 동물 협력에 관한 책과 기사에서 때때로 언급되지만, 상호부조와 윤리에 관한 그의 선구적인 연구를 감안할 때 이러한 인정 부족은 실망스러우면서도, 상호부조와 그의 무정부주의가 종종 풍자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리앨런 듀가킨의 『The Altruism Equation』 은 이런 종류의 연구의 한 예입니다. 이 책은 크로포트킨, 워더 클라이드 앨리 (Warder Clyde Allee), 윌리엄 데이비드 해밀턴 (William David Hamilton) (책 제목의 ” 이타주의 방정식” 을만들어냄) 을 포함하여 ” 이타주의” 에 대해 글을 쓴 7 명의 과학자의 삶과 업적을 논의하는 다룬 후 이 작업이 만들어낸 후속 과학 발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며, 이타주의와 협동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훌륭하게 요약합니다. 진화 생물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의 아이디어와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잘 쓰여지고 매력적이지만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력에 대한 핵심적인 가정을 합니다 (최소한 일부 과학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그치지만, 전체를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둘째, 듀가킨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전제를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말 그대로 최악의 의미에서 비정치적입니다. 셋째, 크로포트킨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번째결합이 가장심각한데, 듀가킨주장의근본문제는상호부조(협동)를 이타주의와동일시하는데있습니다. 이는크로포트킨이결코취한입장이아니지만, 독자는이에대해알지못합니다. 실제로, 크로포트킨은자신의저술에서” 이타주의” 라는용어를거의사용하지않았으며, 『상호부조』에서도예외는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유사한개념으로볼수있으나) 을언급하긴했지만, 상호부조가그것과관련이있다는개념을기각하기위해서일뿐입니다. 그가반복해서강조한바와같이, **상호부조는 생존을위한투쟁의산물**이었습니다. 또한, 책의부제부터그는상호부조가” 진화의요인” 임을강조하며” 이기적인” 행동이나상호투쟁의존재를결코부인하지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인간역사에대한서술은계급투쟁에반영되듯이협동적경향과경쟁적경향사이의갈등으로특징지어집니다.

듀가킨이그린그림은, 의도적이든아니든, 크로포트킨자신의입장과주장에크게어긋납니다. 우리는크로포트킨이“자연의매순간이타주의를본다”(13) 는사실을접하게되며, 그가크로포트킨이“러시아학파”에서차지하는위치와동물세계에서“상호부조”의인정을올바르게지적함에도불구하고“이타주의와협력”을혼동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습니다 (23). 이는그가“크로포트킨의‘상호부조’는우리가지금이타주의라고부르는것을모두포괄하는표현이었다”고주장할때(41) 더욱분명해집니다. 또한, 그가크로포트킨에게“동물세계에서는친절과이타주의가지배적이었다”고주장할때, 그주장은지나치게왜곡되어보입니다(32).

실제로크로포트킨은동물세계(인간포함)가투쟁의세계라는사실을잘알고있었으며듀가킨이그에게부여한개념을명확히거부했습니다:

” 그러나혁슬리의자연관은자연에서인간에의해파괴된사랑과평화, 조화를보았던루소의반대견해만큼이나과학적연역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주장이거의없다는점을즉시지적할수있다. 사실... 동물사회에대한첫번째관찰은... 자연주의자가동물의삶에서사회생활이차지하는역할에대해생각하게만들수밖에없고, 자연에서도살장만을보는것을막을수밖에없다. 마치도살장이자연에서조화와평화만을보는것을막을수있듯이말이다. 루소는부리와발톱싸움을생각에서배제하는오류를범했고, 혁슬리는정반대의오류를범했다. 하지만루소의낙관주의나혁슬리의비관주의모두자연에대한공정한해석으로받아들여질수없다.”

상호부조(-협동-)는그것을실행하는이들에게이익이되기때문에선택되었습니다:

“사랑도아니고, (적절한의미로이해되는) 동정심도늑대의공격에맞서기위해반추동물이나말무리가고리를형성하도록유도하는것아니다. 또한늑대가사냥을위해무리를이루게하는것도사랑의결

과가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개인적 동정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감정이다. 이 본능은 극히 오랜 진화의 과정속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서서히 발달해왔으며,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상호부조와 지원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힘과 사회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항상 협력과 도덕성을 구별하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상호부조가 도덕성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으므로 두 개념은 관련이 있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속 생활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교성은 육체적 투쟁의 한계를 만들어내어, 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적 감정이 발전할 여지를 남깁니다... 연민은 사회생활의 필연적인 산물이지만, 이는 또한 일반적인 지성과 감성의 상당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도덕적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차례로 추가 진화의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도덕성 측면에 관해서 그는 『상호부조』 에세이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배제했습니다:

” 하지만 사회가 인류에게 기반을 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동정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입니다. 본능의 단계에 있을 뿐이더라도 인간의 연대에 대한 양심입니다. 그것은 상호부조의 실천에서 각 사람이 빌린 힘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이 서로 밀접하게 의존한다는 인식, 그리고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정의감 또는 형평성에 대한 감각이다. 이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토대 위에서 더욱 고차원적인 도덕 감정이 발전한다. 하지만 이 주제는 본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상호부조는 대부분의 동물에 의해 실천되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생활은 공평성이나 정의 (어느 정도든) 의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¹ 협력과 이타주의, 선행과 이타주의를 혼합함으로써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의 실제 입장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과학자들 사이의 현대 논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협력적이며 이타적인 행위를 “현대 진화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그 행위를 수행하는 개체에게는 비용이 발생하는 행동”으로 정의하

¹ 도덕성에 대한 크로포트킨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narchist Morality”, Black Flag Anarchist Review Vol. 4 No. 1 (Spring 2024); Ethics: Origin and Development (Montreal: Black Rose, 1992).

동시에, 같은 종 또는 적어도 같은 사회에 속한 동물들 사이에서는 상호 지원, 상호부조, 상호방어가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파늑대 (alpha wolf)’ 신화는 과학자들이 포획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특정 신화가 지배적인 문화의 가장 장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로포트킨은 학술리의 인간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주장과 가정을 배제하고, 자연에서의 관찰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기에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객관적인 과학은 우리가 자유롭고 계급이 없는 사회에 살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때까지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진전은 사회와 가장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윈의 공헌을 예로 들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악의적이든 무분별하게든) 오용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로포트킨이나 굴드 처럼 사회적인식을 가진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듀가킨의 책에서 크로포트킨의 정치가 그를 덜 과학적으로만 들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타정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면 심할 여지 없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크로포트킨이 자신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공헌을 한 주제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자리매김 한 것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사상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점이 많고, 친족 관계에 집착하는 태도 역시 가치 있는 주제에 대해 잘 쓰여진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듀가킨은 그의 짧은 저서 『진화의 왕자: 피터 크로포트킨의 과학과정치에 대한 모험 The Prince of Evolution: Peter Kropotkin's Adventures in Science and Politics』 (2011) 에서 크로포트킨에 관한 내용을 다시 다루었으며, 이 책과 다양한 저널 기사에서 해당 챕터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유용한 링크가 포함된 크로포트킨 관련 섹션이 있는 웹페이지도 운영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졌으나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관심은 진정성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크로포트킨을 접하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크로포트킨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다룬 부분에 결함이 많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를 거웠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관련성 계산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예시가 사용되고 그에 따른 인상이 전달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듀가킨은 자신의 책에서 친족 관계가 이타주의와 단순 협력의 발생에 미치는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층적,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전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거의 의문시되지 않거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듀가킨은 “흡수적 추측”과 가족 및 부족의 본질에 관한 크로포트킨의 논평을 옹호한 듯합니다 (30). 현대 인류학이 “사냥채집사회, 집단, 마을은 종종 대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30) 고 결론 내린 것은 크로포트킨이 주장한 요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가 밝힌 바와 같이, “동물학과 고인류학은 가족이 아니라 무리가 가장 초기의 사회 생활 형태였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실제로 대가족일 수도 있으나, 확실히 흡수와 흡수리가 인류의 기원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으로 거슬러 투사한 족, 중세 이후의 가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크로포트킨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듯이, 그는 “현대적 의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듀가킨은 대가족으로 간주되는 부족조차도 흡수가 제시한 “자연상태”에 관한 허구와 크게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유전적 설명을 찾는 것은 종종 “그저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과학자가 유충이 어떻게 끄떡한 맛을 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설명할 때 제시한 가장 괴기한 예 (79-80) 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이타주의”(친족 관계에 기반) 와 관련이 있는데, 먹히는 유충은 “형제자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적 이점을 얻는다” 고 설명됩니다. 보통 이타주의가 이타주의자 자신을 희생시키고 다른 이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의를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결국 유충은 포식자의 입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잡아먹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실제 행위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희생도 없이 그저 운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이타주의” 와 동일시하거나 어떻게든 친족 관계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류 과학의 너무나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불쾌한 측면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는 에떡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듀가킨은 “이드라마 (흡수리와 크로포트킨) 의 등장 인물 중 한 명도 이타주의, 협동, 친족 관계를 조사하는 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고 한탄합니다. (35) 예를 들어, 실험은 다양한 동물 (주로 영장류) 이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우연히도 크로포트킨의 주장을 확증해주므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포트킨은 분명 그 한계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 실험실과 박물관 뿐만 아니라, 숲과 초원, 대초원과 산에서 동물을 연구하자마자, 우리는 다양한 종들 사이에서, 특히 여러 동물 집단 내에서 엄청난 양의 전쟁과 박멸이 일어나고 있음을 즉시 인지하게 된다.

기때문에, 크로포트킨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8) 그러나 듀가킨은 각주에서 “이타주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다” 고 인정하며, 게임 이론에서는 “협력과 이타주의” 를 “행위자에게 비용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 으로 정의하는 반면, 다른 맥락에서는 협력을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정의하여, 협력자의 보상에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수반된다” 고 설명합니다. (156-7)

크로포트킨은 그러한 잘못된 가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동 (상호부조) 이 종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종은 개별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 에서 그는 두 번째 정의를 분명히, 그리고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부조는 상호투쟁만큼이나 동물의 삶의 법칙이지만, 진화의 요소로서 그것은 아마도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의 유지와 추가 발전을 보장하는 습관과 특성의 발달을 촉진하고, 개인의 복지나 삶의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듀가킨이 왜 첫 번째 정의를 채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와 크로포트킨의 정의 차이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결정은 듀가킨의 문화적·계급적 관점을 반영한 정치적 선택이었는데, 그가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는 그가 “시베리아에서 크로포트킨은 그 지역의 동물과 농민 모두에게서 이타주의와 협동처럼 보이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동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26) 라고 말할 때도 드러납니다. 왜 ‘보이는’ 것일까요? 늑대 무리가 함께 사냥하고 사냥감을 나누는 것은 명백한 협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리 동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도 협동입니다. 생존 (더 나아가 번영) 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비용’ 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소 이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늑대 무리 생활에서 부담하는 ‘비용’ 은 무엇일까요? 혼자 사냥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음식을 나누는 것일까요? 이것이 개별 동물에게 “비용” 이라는 것은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달한 문화적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크로포트킨이 “혈연 관계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타주의의 보루로서 자연을 단호하게 방어” 한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13) 그는 자연이 어떻게 협력과 사회적 삶의 보루였는지에 대한 잘 문서화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크로포트킨은 자신의 작업을 다윈의 작업과 연결하려고 애썼으며, 협력은 개인과 그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자연 선택에 의해 선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이 다윈이 그의 『인간의 유래』 (1871) 에서 제시한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어색한 사실을 훑어보며, 그 결과 자신이 흡수리보다 더 나은 다윈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이 『상호부조』 에

서언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실제로 다윈이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동조적인 구성원이 가장 많이 포함된 공동체가 가장 잘 번성하고 가장 많은 자손을 키울 것이다’ [다윈] 가 썼다”)—실제로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로포트킨이 “혈연 관계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타주의의 보루로서 자연을 단호하게 방어” 한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13) 그는 자연이 협력과 사회적 삶의 보루였음을 잘 문서화하여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크로포트킨은 자신의 주장을 다윈의 이론과 연결시키기 위해 애썼는데, 이는 협력이 개인과 그 자손의 생존을 보장하여 자연 선택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이 다윈이 『인간의 유래』 (1871) 에서 제시한 견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어색한 사실을 간과하며, 그 결과 자신이 헉슬리보다 더 나은 다윈주의자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이 『상호부조』 에서 언급되었으며—실제로 『종의 기원』 에서 다윈의 말을 인용 (“[다윈은] ‘가장 동조적인 구성원이 가장 많이 포함된 공동체가 가장 잘 번성하고 가장 많은 자손을 키울 것이다’ 라고 썼다”)—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헉슬리와 크로포트킨을 다루는 “다윈의 불독 대 진화의 왕자” 장에서 무시됩니다. 그 장에서 듀가킨은 헉슬리가 “도덕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동물 세계는 검투사의 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라며, “가족이라는 한정된 관계를 넘어, 각자가 모든 이에 맞서 싸우는 흡수적 전쟁이 정상적인 존재 상태이다” 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크로포트킨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야기합니다. (12) 크로포트킨은 이를 “끔찍한 기사” (13) 로 여겼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상호부조』 가 된 글들을 썼습니다.

듀가킨은 헉슬리의 입장에 분명히 공감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판단할 만한 “그런 증거를 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는 점과 “국가적 선택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등하게, 아니 더 중요하게도, 자신의 삶의 경험과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토마스 맬서스 (Thomas Malthus) 의 연구에 근거해 결론에도 달한 것 같다” 는 점을 인정합니다. (18) 후반부에서 듀가킨은 “동물 싸움이 치명적인 전술을 수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즉, 동물은 생식 성공률을 높일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검투사처럼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는다” 는 점도 인정합니다. (112)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헉슬리의 1888 년에 세이에서 검투사 언급이 헉슬리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 라는 자신의 메모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17)

왜 증거가 아닌 단순한 주장에 근거한 글, 그리고 그 주요 은유가 근거 없음을 인정 받은 글에 대해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이 아니라 헉슬리가 옳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헉슬리의 증거 부족은 지나가면서 간단히 언급되는 반면, 크로포트킨이 제시한 반대 증거는 “자주 끝이 없고 횡설수설하는 단락에서 상호부조로 본 것에 대한 긴 일련의 예를 늘어놓는” “목록 식으로 나열된 예들” 처럼 일축됩니다. (28) 또한 “크로포트킨은 뛰어난 자연주의자였으며, 그의 시베리아 관찰 결과 다수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28) 라는 사실도 인정되지만, 이는 크로포트킨의 “관찰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

다. 특히 내부적으로 흡수주의적인 집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방 멸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헉슬리와 마찬가지로, 듀가킨 역시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극복하고 비혈연 집단 내에서 협력을 실천하며 윤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크로포트킨이 조롱했듯, 헉슬리의 주장은 마치 신의 불꽃이 존재하며, 자연 선택이 동물과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⁶ 상호부조는 반드시 “좋은”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냥에서 늑대의 협력은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먹이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 동물의 상호부조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사냥꾼은 배고프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은 이타주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가 아니라,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이 협력이 공정성과 정의감을 낳고, 나아가 공감과 이타주의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생존의 필요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리의 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헉슬리가 아닌 크로포트킨이 진정한 선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듀가킨은 “헉슬리와는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이타주의” 가 “인간 도덕성의 기초 중 하나” (117) 라고 주장하는데, 잠시만 생각해 보면 가족을 돕는 것이 때로는 도덕성과 충돌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고주의가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친족 관계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심지어 이타주의) 이라는 것은 친족 관계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도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실천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친족 관계에 한정하면 일부 측면은 설명할 수 있으나, 듀가킨의 책이 보여주듯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를 구하기 위해 강에 뛰어드는 예 (73) 가 제시되는데, 이는 종종 누군가가 두 자녀, 여덟 명의 사촌 등을 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요약됩니다. 『무정부 상태의 과학적 기초』 에 대한 동반 기사에서 크로포트킨은 “강속의 아이” 사고 실험을 활용하여, 무정부주의자의 윤리에 대한 견해 (그가 “평범한 사람” 이 견지한다고 제안하는) 를 “종교적 도덕주의자” 와 “공리주의자” 의 견해와 대조합니다. “평범한 사람” 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는 계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깊이 고통받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천성입니다.”⁷

우리는 그가 만약 아이와 공유하는 유전자의 비율을 계산한 후, 그 비율이 자신들이 신경 쓸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때에 뛰어든다는 ‘유전학자’ 를 추가했다면 얼마

⁶ Peter Kropotkin, “Justice and Morality”, Black Flag Anarchist Review Vol. 3 No. 3 (Autumn 2023).

⁷ “The Coming Anarchy”. The Nineteenth Century (August 1887), 163.

팬지와는 98~99% 의유전자를공유하며, 두인간은유전적으로 99.9% 유사하다는사실을언급함으로써자신의주장을스스로약화시킵니다. 자손의관점에서어머니와아버지로부터각각 50% 씩 DNA 를물려받지만, 그두세트의유전자는거의동일하며비혈연인들사이에서도유사성이매우높습니다. 만약“이에는이”가협동 (또는이타주의) 을위한“이기적인”유전자가복제를추구하기때문에”이에는이” 가효과를발휘한다면, 친족관계는중요하지않게됩니다. 왜냐하면해당유전자는모든인간에게공통적으로존재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이는이타주의가수수께끼가아니라는것을의미하는데, 관련유전자는이타주의적개인의비용과관계없이복제될것이기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전자수준의관점은그것이반대하기위해등장했던“집단선택”과유사한결론에도달하는데, 즉개별동물이다른동물의이익을위해자신을희생할수있다는것입니다.⁵

“이에는이 (tit-for-tat)”(또는로버트트리버스의용어를사용하면“호혜적이타주의”) 의관점에서보면, 이는개인들이협력하되, 타인을이용해먹는사람을 처벌하는것을전제로합니다. 크로포트킨은상호원조가상호적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것을잘알고있었습니다. 그는비협조적인동물은“적, 혹은그보다더나쁜대상으로취급될것”이라고지적하며, “반사회적본능이계속존재하더라도… 자연선택은이를지속적으로제거해야한다. 왜냐하면장기적으로볼때, 연대의실천이포식적성향을지닌개체의발달보다중전체에훨씬더유리하기때문이다. 가장교활하고가장영리한개체들은사회적삶과상호지원의이점을이해하는개체들을위해제거된다.” 라고설명합니다. 이는시간이지남에따라사회적본능과공정성감각의진화를가져올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생활은그에상응하는사회적감정, 특히집단적정의감이습관으로자리잡지않는한완전히불가능할것이분명합니다. 만약모든개체가자신의이점을끊임없이남용하고, 다른이들이피해자에게개입하지않는다면, 어떤사회도존재할수없을것입니다. 그리고정의감은어느정도모든사교적동물에게서발달합니다.”

“크로포트킨이” 같은종의구성원을포함하는거의모든종류의행동은이타주의를구성한다” 고생각한것은여기서끝납니다.(28) 그는다른사람을착취하려는사람들에대항하여협력을강제해야할필요성을잘알고있었습니다. 이는듀가킨이크로포트킨의사상을묘사한것과는거의맞지않지만, ‘이에는이’의핵심측면, 즉협력적행동은보상을받고이기적행동은처벌받는다는점을선행하고예측합니다. 시간이지남에따라 (반복적상호작용) 사회적생활에서협력이확산될것입니다

⁵ 크로포트킨은집단선택주의자 (“종에유익하다”) 로간주되기도하지만, 그는협력이관련된개별동물에게이익이된다는것을인식했기때문에그렇지않습니다. 즉, 그는집단이개인으로서구성되어있으며, 협동이여러가지면에서개인들에게이익을준다는‘상향식 (bottom-up)’관점을가졌습니다. 그러므로이는“다른사람을돕는것”이아니라 상호부조 (역자주: 서로돕는것) 입니다.

야하는지에대한열정적인정치적인견에의해채색되었다”(35) 는점에서별로중요하게다루지않습니다.

이러한태도는하나의패턴을보여줍니다. 현재체제에의문을제기하는아이디어를가진과학자들은그의견이언급되는반면, 그들의논평이현재제의전제를반영할경우에는별로언급되지않습니다. 크로포트킨과알리 (퀘이커교도이자평화주의자) 의정치적견해는비교적자세히다루어져, 이들이과학적연구에영향을미쳤다는인상을주지만, 보다전통적인관점을가진다른과학자들에대해서는그렇지않습니다. 헉슬리의증거없는추측은별다른비판없이넘어가지만, 해밀턴은(147) “정치적올바름이… 난폭해졌다”라고느꼈으며, 여성의수학적능력에대해성차별적견해를가졌고 (이에대해듀가킨의해명은실로우울합니다), 때로는“우생학에관한논란의여지가있는견해를가지고있으며, 심지어심각한장애를가진아기에대한유아살해문제를진지하게제기하기도한다.”(94) 라고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의견들은어떤이유에서인지정치적이라고간주되지 않으며그의과학을왜곡한다고보지않습니다. 그러나잠시만생각해보면, 헉슬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태도가그가무엇을중요하게여기는지, 수집한증거를어떻게해석하는지 (그리고어떤증거를수집할지) 등연구방향에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습니다.

스티븐제이골드의말을떠올려볼가치가있습니다. 그는“과학자체가객관적사업이라는신화를비판하는것이옳으며, 과학자들이자신의문화적제약을벗어던지고세상을있는그대로바라볼때에만과학이제대로수행된다… 과학자들이삶의만연한측면을반영하기위해자신의계층이나문화를명시적으로옹호할필요는없다”라고말했습니다. 이명백한사실을인식하면과학은“순수한정보를수집하도록프로그래밍된로봇의작업이아니라사회적현상, 대담한인간의활동으로이해되어야하며”사람이해야하므로“사회에내재된활동”이라는결론에이르게됩니다. 사실조차도“순수하고깨끗한정보”가아니라, “문화가우리가무엇을보고어떻게보는지에도영향을미친다. 게다가이론은사실에서불가피하게도출된귀납이아니라, 가장창의적인이론들은종종사실위에덧씌워진상상력풍부한비전이며, 상상력의원천역시강하게문화적이다.”과학은“그호기심어린변증법에서벗어날수없다. 주변문화에내재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과학은그것을지탱하는전제를의심하고심지어뒤집는강력한도구가될수있다… 과학자들은자신이종사하는분야에내재한문화적전제를규명하고, 만약다른주장이적용된다면어떤답이도출될수있을지질문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 또한과학자들은놀란동료들이당연하게받아들여진절차에직면하도록만드는창의적인이론을제안할수있다.”²

이내용은듀가킨이그의책에서서술한역사에해당합니다. 그는크로포트킨에관한장에서다니엘 P. 토데스 (Daniel P. Todes) 의 『Darwin Without

² The Mismeasure of Man (Penguin, 1981), 21-3.

Malthus』를 올바르게 인용하지만, 토데스가 다윈의 자연선택이론이 러시아의 지식인 및 과학계에서 환영받았던 반면, 다윈의 맬서스주의적 가정은 그가 속한 사회와 “자신의 계급, 서클, 가족의 이념적 관점을 공유했다는 당연한 사실”의 산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만약 독자가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저자의 이념적 선입견을 부르주아적, 맬서스주의적, 또는 어쩌면 전형적인 영국식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³ 반면 듀가킨은 “맬서스주의 교리가 왜 영국에서 빠르게 널리 받아들여졌는지”(20)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이 지배계급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계급의 관점은 다르면서도 별의미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밀턴의 작품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밀턴 작품의 결보기 “비정치적” 성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크로포트킨의 정치적 입장은 그가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더 넓은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통찰력을 제공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크로포트킨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장밋빛 안경”이라는 비유를 적용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농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듀가킨은 헉슬리가 인류가 “자원보다 더 빨리 번식한다”(18)는 맬서스적 개념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리고 “빠른 증식이 자원 부족할 때 모든 이에 대한 흡수적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그의 확신이 그를 도덕성에 대한 지침을 찾기 위해 진화론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회상합니다.(21) 헉슬리 자신은 맬서스의 “결론은 결코 반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반증되지 않을 것이다”(21)라고 인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맬서스가 다윈의 사상에 미친 영향도 언급되지만, 이후 몇 년간 이러한 주장들이 반박되었다는 어색한 사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듀가킨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크로포트킨은 이 책에 인용된 글(31)에서 이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생계 수단과 편의 수단의 인공적 생산을 위해 협력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법칙은 맬서스의 법칙과는 정반대이다. 생계 수단과 편의 수단의 축적은 인구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⁴

이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맬서스가 악명 높은 저서를 썼을 때 인구가 8 억명이었고, 지금은 거의 80 억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은 발생하지만, 이는 생산 부족 (정반대)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내의

³ Daniel P. Todes, Darwin Without Malthus: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Russian Evolutionary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3.

⁴ “The Scientific Basis of Anarchy”. The Nineteenth Century (February 1887), 246. 이 기사에는 이상을 하는 기사인 “The Coming Anarchy”(The Nineteenth Century, August 1887) 와 함께 나중에 개정되어 팜플렛 pamphlet Anarchist Communism: Its Basis and Principles (1891) 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분배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듀가킨이 헉슬리의 주장이 (계급) 편견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한 것처럼 헉슬리를 인용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크로포트킨의 정치는 그에게 명백한 것, 즉 “비정치적” 인사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크로포트킨의 과학적 신임이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의심받는 반면, 그의 정치적 입장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로서 크로포트킨은 “국가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소규모 집단으로 살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돕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31) 하지만 크로포트킨은 적절한 규모의 집단 연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상했으며, 소규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집단은 작을 수 있지만, 모든 집단이 반드시 작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를 가진 현대 국가만이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 (32) 은 기껏해야 불완전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자인 크로포트킨은 사유 재산과 그로 인한 불평등 또한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크로포트킨은 현대 국가와 자본주의가 서로 얽혀 있음을 강조하며, 둘 다 반대했습니다. (소수에 계집종된) 정치적 권력을 없애고 동시에 (소수에 계집종된)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듀가킨은 “사회주의 이전 무정부주의”(13)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이타주의 방정식” 자체는 어떨까요? 해밀턴의 규칙은 “자연선택은 $r \times b > c$ 일 때 마다 이타주의 유전자를 선호한다 (95)”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타주의의 비용 (c) 은 해당 유전자를 보유할 확률 (r) 이 낮은 혈족이 얻는 혜택 (b) 과 균형을 이룹니다. 듀가킨은 “해밀턴의 규칙에서 b 와 c 항의 영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었다”(148) 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혜택과 비용이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인류를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한 논의 (127-9)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논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유전적 결정론보다 확실히 더 크다는 점을 드러내어, 유전자 수준 분석 자체의 한계를 우연히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r 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비용과 편의에 대해 수치적 값을 할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듀가킨은 친족 관계에서 ‘이타주의’ 의 뿌리를 찾고자 하지만, 동시에 최후의 딜레마와 그것이 비혈연 동물의 협동적 행동의 진화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이에는이 (tit-for-tat)”라는 개념으로 이어진 과정을 논의합니다.(143-5) 그러나 그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개체들이 “이에는이”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그 유전자의 “형제자매”라고 제안합니다. 유전자는 “다른 ... 개체에 있는 자신의 사본을 도울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일종의 친척” 인 셈입니다.(146)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인간이 고양이와 개와는 90% 이상의 유전자를, 침